

연중 제19주일

제1독서 : 1열왕 19,4-8

제2독서 : 에페4,30-5,2

복음 : 요한 6,41-51

# 순정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에페 5,2a)

## 강론

### 참된 빵

전종복 신부 / 임실 천주교회

20여년 전 학생시절, 말씀하시던 교수 신부님의 모습이 생생하다. “미사중 ‘이는 내 몸이다’ 할 때 종종 이제 나의 살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네!” 자신을 제물로 기꺼이 바치려는 참된 사제의 살아 있는 마음의 소리였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2천년 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야훼의 정의보다 전통과 인습의 노예였다.

대사제는 돈에 눈이 멀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켰고,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는 도둑이며, 탐욕스런 거짓 목자였다. 성전과 조상의 묘를 화려하게 꾸미고, 공허한 장광설로 자신의 악취를 감추려한 위선자요, 썩은 냄새 풍기는 무덤이었다. 백성을 위한다는 구실로 하느님의 아들을 죽이도록 명령한 양의 탈을 쓴 살인자요, 야훼도 두려워하지 않는 포악한 법관이었다.

친인척과 아무꾼들로 구성된 예루살렘의 종교의회는 야훼의 뜻을 저버린 지 이미 오래였다. 예언자를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하수인들이었다. 기쁜소식 전하는 예수님을 정신병자, 마귀의 두목으로 여론제판을 유도하는 악마의 자식들이요, 독사의 족속들이었다. 사람의 아들의 흠집을 만들고자 혈안이 된 모함꾼들이요, 사기꾼들이었다.

“나는 살아 있는 빵이다.” 착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달게 받으며, 사랑의 극치를 보여 주신 그리스도의 언행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하늘 나라에 속한 행복한 사람이다.

형제 여러분! 2천년 전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지금도 지속되지는 않는지? 오늘도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들들을 단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권수호란 빌미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작태를 일삼고 있지 않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리하리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두자! 다시 한번 죄스런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생명의 빵으로 오시기를 그분께 간절히 기원하자! 살아 있는 빵을 기꺼이 모실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분께 간곡히 기도드리자!

## 소리

###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지글거리는 불벌더위는 7월 한달을 완전히 녹초로 만들고 말았다. 하늘도 땅도 그 안의 모든 생물까지도 별경게 익혀 놓았다.

방학과 휴가로 이어지는 7월의 설레임과 기대감조차 80몇년 만엔가 찾아온 무더위가 모두 앗아갔다.

모두가 짜증나고 괴로운 계절이 되고 말았으나 방학을 맞은 우리 청소년들은 더욱더 이 여름이 괴롭고 한심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중학교의 보충수업이 우리 자녀들의 계절 감각을 마비시켜 놓은 범인이다.

입시지옥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행 교육제도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청소년들은 방학이라 해서 감히 쉬고 어찌고 할 겨를이 없다.

더구나 학교생활에 찌든 심신의 고달픔을 풀어보고 소박한 호연지기(浩然之氣)라도 길러봐야 하겠다는 심사는 아예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지난 25일, 중학교는 1일부터 보충수업이 시작되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금년에 비롯된 건 아니다. 학력의 우수함을 최선(最善)으로 치는 이 사회의 야박함이 청소년들의 교양과 심적 평정을 항상 짓이겨 놓는다. 젊음이 분망한 청소년시절의 모든 경험은 일생의 좌표가 되고 정신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쯤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우리 어른들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제도의 보완, 사회에 팽배한 편견의 해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다. **☞**

###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44

돌무더기를 쌓아 너와 나 사이에 증거로 삼자 (창세 31, 43~32, 3)

이 대목은 석상을 계약의 증인으로 내세우는 엘로히스트 문헌과 갈르엣이라 불리는 돌무더기를 계약의 증인으로 내세우는 야훼스트 문헌이 서로 혼합되어 복잡한 이야기를 전해 준다.

야곱의 정당한 비판을 받고 당황한 라반은 야곱에게 속한 두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얼마간의 재산이 모두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도 “내 딸들과 그애들이 낳은 아이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라반의 말은 이미 풀이 죽어 있다. 라반은 야곱의 세찬 반발과 비난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평화조약의 체결을 제안하고 나선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 너와 나 사이에 증거로 삼자”고 야곱에게 요청한다.

라반이 증거로 요구한 것은 돌무더기였는데 야곱은 먼저 석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를 만든다. 서로 다른 두 문헌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논리적 모순인 것이다. 석상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중 베델에서 하느님을 꿈에 뵈고 세운 바 있었던 기념비이다. 이 석상 또는 돌기둥의 숭배는 가나안의 풍산신 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의 배척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야곱이 세운 석상의 의미는 하느님께 단순히 감사할 목적으로 만든 기념비 이상의 의미는 없다. 돌무더기를 다 만든 야곱 집안과 라반 집안의 사람들은 돌무더기 옆에 모여 잔치를 벌였다.

라반과 야곱이 만든 돌무더기는 라반 쪽에서 아람 말로 ‘여가르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 쪽에서 히브리 말로 ‘갈르엣’이라고 불렀는데 둘 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다.

석상과 돌무더기를 증인으로 삼고 야곱과 라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내용은 라반이 자기 딸들에 대한 야곱의 성실한 태도를 확인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느님은 석상 높은 곳에서 야곱이 라반의 두 딸을 구박하거나 그들을 버리고 새 장가를 가지 않나 지켜보실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내용은 라반과 야곱 사이의 불가침 협정이다. 두 편은 석상과 돌무더기를 넘어 서로를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불가침 협정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길르앗 산악지대는 아랍족과 이스라엘족 사이의 경계지역으로써 기원전 9세기와 8세기 동안 내내 두 민족 사이에 격렬한



야곱이 라반과 맺은 계약의 표시로 세워둔 돌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였다. 이 이야기의 저자는 이 격전지에 전쟁이 치치기를 갈망하면서 이 계약을 첨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야곱과 라반은 각자 자기 할아버지의 신을 두고 맹세했다. 둘 중에 누가 이 돌무더기와 석상을 넘어 침범하면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홀의 하느님이 그 진위와 적법성을 판결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약을 확인하는 뜻에서 동행한 일가 친척들을 모두 불러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이튿날 아침 라반이 떠난 뒤 야곱도 길을 떠났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신들인 천사들을 만난다. 천사들은 에사오를 만나기에 앞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을 격려해 줄 것이다. 동시에 그들의 출현은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는 대목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는 것 같다. 야곱은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느님의 진영’ 또는 ‘두 개의 진영’을 뜻하며, 요르단 강 동쪽에 위치해 있다. 야곱은 베델에서와 같이 이 장소도 하느님이 당신의 심부름꾼인 천사들과 함께 거처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느님을 믿고 20년 동안 외국 땅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온 야곱은 마침내 보답을 받은 것이다. 하느님은 강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약하고 겸손한 자의 편에 서 주신다.

**리틀해즈**  
· 원목가구 주문 제작  
· DIY 나무모아 전문점  
류 수(에밀리오)  
김 경 숙(아기 막달레나)  
효자1동 파출소앞  
☎ (0652)223-6422

주방요리기구 전문점  
**비전사**  
카이젤 인덕션렌지, 카터기,  
테크노세라믹, 녹즙기, 마마깨주부  
최 학 만(비오로)  
송 계 순(소화 데레사)  
☎ (0652)244-7928~9  
FAX (0652)244-4534

**활티생수**  
김 일 수(요 셉)  
소 화 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천호장의사**  
장례용품 생산 및 장례의전 서비스  
24시간 상담, 대기  
한 규 학(안토니오)  
☎ (0652) 253-0744  
71-0404



교리상식⑥

성모 마리아의 승천

8월의 중심 축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요 일년 중 4대 축일의 하나이다.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은 뒤 5년 만인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친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계시된 신앙의 진리이다."

들어 높임, 높이 올리움, 세상에 드러남을 현양(顯揚)이라고 한다. 그러나 승천과 같은 높임은 우리 말에 없다. 구약 성서의 엘리야, 에녹 등은 하늘 높이 올려졌는데 이유는 하늘에서 대기하다가 바룩(Baruch)처럼 최후 심판 때에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서이다. 이런 현양은 한 인간의 종말론적 의의를 설명하는데 사용해 온 말이다.

현양의 조건은 첫째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이다. 둘째는 현양되신 예수님의 권능과 은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마리아의 현양은 온전히 하느님 은총의 덕이다. 즉 하느님께서 불러 올리셨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스스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몽소 승천(蒙召昇天)하셨다.

마리아의 현양은 구원을 위한 하느님 사업 즉 구세사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즉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함이다. 마리아의 현양은 또한 종말에 이룩될 교회의 보증이다. 증거를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 준 유일한 표징이다.

\* 몽소 승천(蒙召昇天): 성모의 승천을 가리키는 용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므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천 하였으나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그 부르심을 받았기에 승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모의 승천은 부르심을 받은 승천이란 의미를 지닌 몽소승천이다.

교 구 소 식

- 1. 참사회 : 8월9일(화) 오전10시 교구청
  - 2. 가톨릭 언론인회 : 8월8일(월) 오후12시30분
  - 3. 가톨릭 방송인회 : 8월8일(월) 오후7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4. 전주 선택 주일피정 : 8월12일~14일 천호 피정의 집, 회비-45,000원, 접수-가톨릭센터 교육국(85-0041)
  - 5. 예비신학생 모임 : 8월14일(일)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 6. 사람의 다리 윌레미사 : 8월8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 7. 레지아 1단계 기사교육 : 8월9일~11일 천호 피정의 집
- ※ 축! 영명 : 8일(성 도미니꼬) 강인찬 신부님  
10일(성 라우렌시오) 박진량, 범선배, 전대복, 박기준, 이수현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환경보호(5)

비닐제품, 알미늄, 랩 등은 분해되지 않아 자연경관을 해치고 처리 불가능한 쓰레기가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맙시다.

요십이 (1093) 김명오



사무장 구함

- 제출서류 : 이력서, 세례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 연락처 : (0654) 446-9197
- 팔마 천주교회

N.I.P(새본당상)수련회

- 일시 : 8월19일~21일
- 주관 : 전주교구 M.B.W 추진위원회
- 대상 : 본당신부, 수녀, 사목위원 (각 본당 3명 이상)
- 참가비 : 1인 30,000원
- 연락처 : 화산천주교회 221-9842  
금주천주교회 53-7187

용머리 바자회

<신축기금 마련>

- 때 : 9월9일~12일
- 장소 : 용머리 성당

진·강·상·담·환·영  
성신당 한약방 성신당 건강원

이 흥 재(요셉)      이덕재(발도르메오)  
☎ 245-9787~8      ☎ 242-9118  
전주 우아동 기린중학교 정문 옆

조립식 건축  
한국 건설

조립식건물, 일반공사  
경량칸막이 컨테이너  
김 해 선(레미지오)  
☎ (0652) 75-0161  
FAX (0652) 71-6301  
휴대폰 011-659-8355

성베네딕도 수도회  
성소 피정

- 일시 : 8월19일~21일 오후 4시
- 장소 : 왜관 수도원
- 대상 :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 준비물 : 성서, 세면도구, 체육복
- 문의 : (0545)970-2000 성소담당자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19주일
- ◎ **축! 세례명 축일**: 신부님의 세례명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축하식 및 축하연: 오늘 장엄미사 후
- 1. **장우회 소풍**: 8일 전 8시, 장소-여산성지 및 수덕사 전원 참석바랍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 2. **본당 직원소풍**: 11일 사무실은 휴무 \* 직원소풍 관계로 저녁미사 없고 새벽미사 있음.
- 3. **전입을 환영합니다.**  
· 이기배(바로로) 가정-기린봉APT1반 ☎87-5146  
· 김윤수(베드로) 가정-인후7반 ☎231-9186
- 4. **모임**: ①올드레아(7일 장엄미사 후)  
②부녀회(9일 어머니미사 후)  
③세실리아회(12일 저녁미사 후)
- 5. **성모 승천 대축일(8월15일)** 미사시간 안내  
새벽 5시30분, 전 10시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 6. **금주 청소**: 중노3,4반  
치주 청소: 중노5,6반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필

- 1. **축! 영세식**: 15일(성모 승천 대축일) 공식미사
- 2. **영세자 집중교리**: 9일~13일 오후 8시
- 3. **대건회**: 오늘 공식미사 후
- 4.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 5. **구역분과회**: 9일(화) 오전 10시
- 6. **안나회**: 11일(목) 오전 10시
- 7. **여성분과회**: 13일(토) 오전 10시
- 8. **고3학생 모임**: 13일(토) 저녁미사 후
- 9. **요셉회, 해설자 모임**: 14일 공식미사 후
- 10. **꾸리아**: 14일 오후 2시
- 11. **청년회**: 14일 저녁미사 후
- 12.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15일(성모 승천 대축일)
- 13. **사무원 휴가**: 8~13일
- 14. **성당 청소**: 13일(토) 천사의 모후, 사도의 모후
- 15.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강주호 부부  
봉헌-지혜룡 가족
- 16. **치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오교성 부부  
봉헌-김성원 가족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1.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의 날**
- 2. **모임**: ①꾸리아,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안나회, 자모회-다음주일
- 3. **장년회 단합대회**: 13일(토) 오후 1시~14일(일)까지
- 4. **성모 승천 대축일**: 15일(월) 미사-오전 10시 공식미사 한 대
- 5. **축! 어린이 첫영성체**: 15일(월) 성모 승천 대축일 공식미사 중
- 6.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중
- 7. **금주 청소**: 신비로운 장미Pr
- 8. **치주 청소**: 천사들의 모후Pr
- 9.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김봉길 ②이행남  
봉헌-한동욱씨 부부  
치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강덕용 ②이석남  
봉헌-이상용씨 부부  
성모 승천 대축일: 해설-이준봉, 독서①남현준 ②김금자  
봉헌-첫영성체 어린이
- ※ **교리상식**  
**할렐루야(HALLELUJAH)**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힐렐'(hil-  
lel: 찬미하다)이란 동사의 명령형 '할렐루'(hallelu)와 하  
느님이란 말의 야훼의 약자 '야'(JAH)의 합성어이며 그 의  
미는 "야훼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뜻이다. 천주교회는 AL-  
LELUIA(알렐루야)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연중 제19주일!** (8월15일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 1. **꾸리아**: 8월7일(오늘) 오후 2시
- 2. **사목회**: 8월9일(화) 오후 9시
- 3. **성심회**: 8월9일(화) 오전 10시30분
- 4. **프란치스코3회**: 8월14일(다음주일) 오후 2시
- 5.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시간**: 8월15일(월) 오전 6시, 오전 10시  
※ 성전 보수헌금을 납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철

- ◎ **연중 제19주일**
- 1. **금주**: ①성소후원회 회비 납부 주일  
②올드레아-공식미사 후  
③재속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④요셉회(후 6시)
- 2. **돈보스코회**: 10일(수) 오후 7시30분
- 3. **치주**: ①자모회(후 6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 4. **미사시간 안내**  
평일: 월-오전 5시30분  
화-금-오전 5시30분, 오후 7시  
토-오전 5시30분, 오후 7시(복전미사)  
주일: 오전 5시30분, 9시, 10시30분(공식미사)  
오후 3시, 5시, 7시
- 5. **글로리아 청년성가대 단원 및 남주자 모집**: 연습-화요일 오후 8시, 일요일 오후 6시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1. **축! 세례**: 다음주일 오후 4시 대부모 30분 전 도착 준비  
①세례 대상자 집중교리: 8~12일 매일 저녁 8시  
②세례 대상자 면접: 8일 전 9시~12시, 저녁 7시 이후
- 2. **사목회 삼일위원회**: 11일 저녁 8시 신앙학교 평가회
- 3. **본당 자체 감사**: 11일 전 10시, 사목회와 제단채장은 12시에 감사절과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 4. **회의**: 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빈첸시오회-10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12일 후 3시  
성체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청년성가대-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5. **주일 미사안내 담당자**: 오늘-함문권(아오스명) 김완철(그레고리요) 이규현(무까) 윤명숙(엘리사벳) 채금자(미카엘라) 다음주일-오무관(도미니코) 전생민(라우렌시오) 김문선(크리스티나) 이금남(세실리아) 최효숙(올리아)
- 6. **어름 신앙학교 및 수련회 은인께 감사**: 청소년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조금 총액: 1,152,970원